

학부제 시행, 열린 자세로 논의할 때

‘준비된 대안, 지리학부’, ‘누구를 위하여 예과통합을 하려는가?’, ‘학부제 유예하자’, ‘학생을 위한 학부제인가’

양 캠퍼스 곳곳에 나뉜은 현수막이며 대자보, 전단지며 적혀있는 문구이다. 지난 주 양 캠퍼스는 학부제 시행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로 떠돌췌한 홍역을 치렀고,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제 도입을 앞둔 학생들의 이와 같은 반대 시위는 단순히 학부제 자체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학교측의 학부제 도입 과정에 대한 불만의 요소들이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지리학과는 지난 27일부터 전공 수업 거부시위를 벌였다.

개강 직후부터 공청회와 교무처장 면담, 본관 항의 방문 등 가지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지리학과는 지난 27일 임시총회를 개최, 이 날 실시한 수업 거부에 대한 투표에서 전체 투표인원 1백84명중 1백15명이 찬성의 뜻을 보여 수업 거부에 불입하는 한편, 노천극장과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리학과가 이처럼 학부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리학과가 이학부의 특성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리학과 학부제 대책위원회 김진환(94)군은 “지리라는 학문의 특성상 타학과와의 통합이 불가능하고 지리학부만의 단독 변형만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의학계열 대학들의 반대도 이에 못지

않다.

지난 97년 9월 일간지에 ‘경희대 한의대의대-치대 예과과정 99년부터 통합운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시작된 학생들의 반대 움직임은 지난 26일자 동아일보에 ‘의학계열 학부제가 성사되었다’는 식의 기사가 게재되면서 더욱 불거지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취재 기자의 추측 보도일 뿐 그러한 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이러한 기사에 대한 항의 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이후에도 몇 차례 이러한 성격의 기사가

교측의 행정에 의혹을 품고 ‘밀실행정’을 비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학교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수원캠퍼스 발전위원회(대발위)’를 통해 학부제 사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논의 진행 과정에 따른 결과보고가 일반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학생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물론 진행과정을 학생 대표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된 중앙운영위원회가 정작 수 미달로 무산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총학생회측은 전달 미흡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다른 방법을 통해 서로라도 결과 통보가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이다.

이후 2차 대발위를 통해 지난 30일 오후 4시 개최된 학부제 설명

수업거부, 성명서 제출, 항의집회 등 반대 움직임 거세...해결책 모색 시급

일간지에 게재되자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에 이른 것이다.

의학계열 대학 중 가장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펴고 있는 대학은 한의대로 의·치대의 예과 통합에 대해 김진영 한의대 학생회장은 “학문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예과 통합은 불합리하다”며 “학교측이 예과 통합과 관련해 내세우고 있는 ‘제3의화 창출’은 상호 학점 인정제 및 편입으로 얼마든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단대별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반대를 표하고 있는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부제 개편 상황을 공개하고 학생참여를 꾀했다. ‘모 단대가 없어진다.’ ‘검과와 을과가 통합된다’는 등의 근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이 학내에 돌자 학생들은 학

토론회에서 학교측은 학부제가 단대별 입학제, 무전공 입학제들을 시행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임을 학생들에게 강력함과 동시에 그간 부분적으로 수용한 학부제의 기형적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학부제 개편이 필요함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이에 학생들은 현재 학부제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한 상태이나 초기에 비해 다소 설득적으로 변한 학교측의 자세에 의아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결과 학교측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부제 개편 상황을 공개하고 학생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학생측 또한 “오해로 인해 제재,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혀 서로

간의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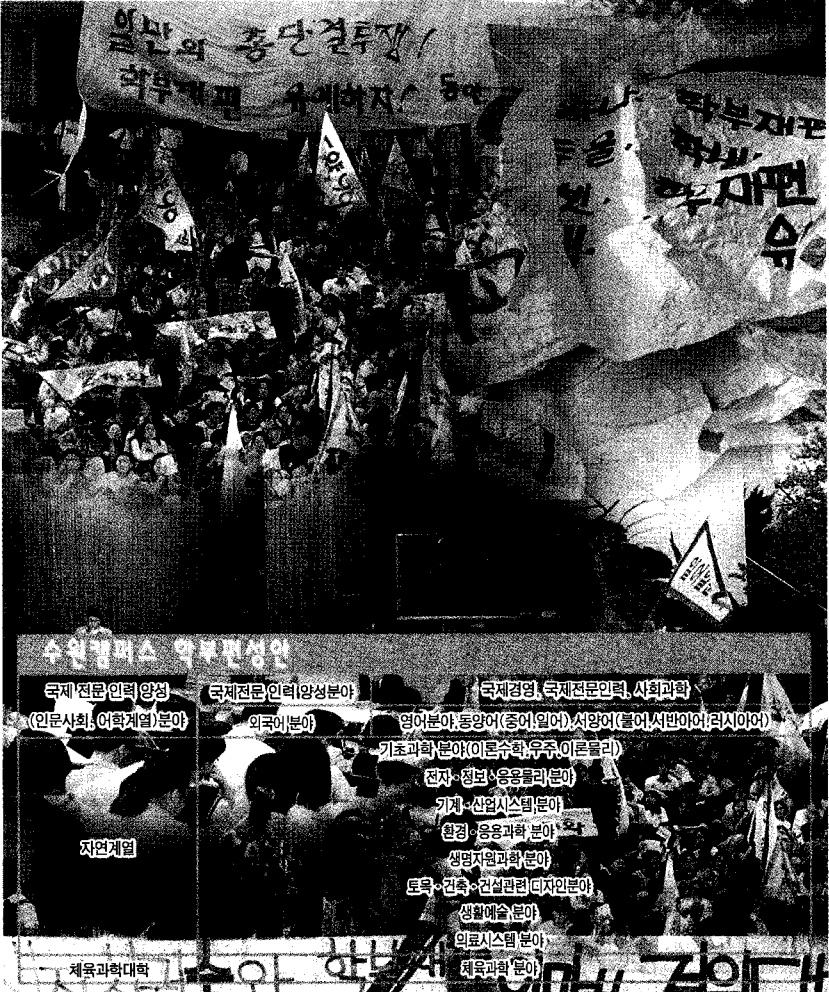
이제 와서 학부제의 전면 폐지를 바라는 것은 분명 헛된 욕심이고, 무모한 꿈일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부가 고등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각 대학들이 학부제를 도입할 것을 권유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올해부터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선정에 있어 유사학과 통합 등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대학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부여하겠다”고 밝혀 우리 학교는 물론 우리나라 대학들 대부분이 학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열린 자세로 해당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만이 가장 윽통성 있는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작업이 아직은 부족한 듯 하다.

(강남이 고사회 김윤택기자)



▲학내 구성원 간의 풍부한 의견교환이 학교 학생간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학내 각종 취업특강 학생반응 다양

창업특강보다 취업특강 선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린 취업특강

IMF 시대를 맞아 양 캠퍼스가 각종 취업특강을 개설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열린 '98 취업준비 및 전략 특강'은 총 3개 강좌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첫째날인 28일에는 매일경제취업뉴스 장재성 국장의 '98 취업 준비 및 전략' 특강이 개최되었다. 취업준비단계, 여학생 취업 준비 및 대책, 취업실전단계 등에 대해 강의한 이 날 특강에는 6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높은 참석율을 보였다.

특히 이날 강의의 경우, 이력

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시험 준비 등 취업과 관련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날인 29일에는 2부로 나누어 강의를 실시했는데 1부 '외국 기업 취업준비 및 전략' 시간에는 참석자 수가 4백명을 넘긴데 비해 '50만원으로 50억을 번 여자의' 저자 전용경씨가 강의한 'Small Business' 시간에는 학생들의 참석율이 저조해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학생들 5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취업정보실 관계자는 “취업 불황기인 요즘에도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의 수는 극

히 드물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캠퍼스에서 지난 30일 오후 2시에 열린 '제7차 인성교육 및 진로특강' 시간에는 '한국 매스컴의 특성과 취업'을 주제로 언론정보대학원 이상욱 교수와 박종화 교수가 특강을 실시했다.

방송계 및 인쇄매체 업체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특강 시간에는 약 2백명이 참석했다.

한편 수원 캠퍼스 취업정보실에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창업스쿨 강좌 신청 점수를 받는다. 창업스쿨 강좌에서는 창업의 개념, 준비사항, 올바른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전문가사들을 초빙하여 강연을 듣는다.

이처럼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강남이 기자)

농구부 MBC배 대학농구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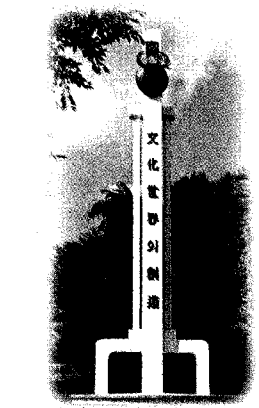
결승전서 84대 73으로 명지대 꺾어

우리학교 농구부는 지난 달 20일 부천 시립체육관에서 결승전을 가진 '98 MBC배 대학농구대회'에서 창단 이래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달 13일과 15일 경기에서 동국대와 명지대를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우리학교는 주장인 강혁을 비롯해 김상철, 하상윤 등의 주전이 고무 활약함은 물론

발빠른 수비로 물수레 당한 연세대를 대신해 결승에 오른 명지대를 84대 73의 점수차로 누르고 패자를 확신했다. 한편 농구부는 1,2학년 연습을 강화시킬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한·일교류 이상백배 대학농구대회'에 강혁(체육4), 김성철(체육4), 송영환(체육3)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다.

시문에 현상공모 오는 9일 마감



교실밖

더 나은 길을 향해

‘이거 말야, 연장이 안 좋아서...’, ‘잘 할 수 있었는데 도구가 맘에 안들어서...’ 자신이 만든 물건이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흔히 능력을 탓하기보다는 연장이나 도구, 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말을 하곤 한다. 실제로 도구나 수단 또는 환경은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난 달 23일 오후 6시 50분 수원캠퍼스 교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학생 세명이 뒤에서 오는 차에 치인 것이다. 운전

자는 우리학교 학생으로 운전연습을 하고 있던 무면허 운전자였다. 다친 학생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운전자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현재 피해자와 가해자는 합의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학생의 무면허 운전 연습이었지만 발생지역을 볼 때 이번 사건에서는 도로상의 문제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할따고개’의 급커브 지점으로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사고 지점은 인도가 중간에 끊기는 지점이라 건널목에 대한 표시도 없는 상태이다. 또한 그곳은 학생들

이 자주 횡단하는 곳이고 동시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어 평소 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었다.

이런 곳은 학내 곳곳에 있다. 스쿨버스가 승하차하는 사회대와 산업대 사이의 삼거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침에 많은 학생들이 같은 길 위에서 차량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학내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학내에서 다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도와 차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도구, 정비 덕에 좋은 것들을 만들었다네.’라는 장인의 흐뭇한 말 한마디처럼 ‘우리학교는 차도와 인도가 잘 정비되어 언제나 여유롭게 캠퍼스를 거닐 수 있다.’라는 말들이 학생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그날을 기대해 본다.

(지은정 기자)

사 고

대학주보 지면역신

대학주보가 변합니다. 43년간 모든 경의인의 입과 귀가 되어온 대학주보는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볼음의 나이를 훌쩍 넘긴 대학주보는 어여 멈추지 않고 변화하는 대학과 사회상을 담아낼 큰 그릇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면역신을 단행합니다.

첫째, 제목이 바뀝니다. 1984년 첫 가로쓰기와 함께 사용된 연재의 제목이 연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아울러 대학주보 테마신문인 Free Style의 제목도 더욱 자유롭고 개성있는 모습으로 변신할 것입니다.

둘째, 지면 배치가 새로워 집니다. 독자들의 정보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면 개편을 단행합니다. - **지역·의료원면**: 앞으로 지역·의료원 섹션은 우리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생활권의 각종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위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면 배치도 기존의 6면에서 3면으로 옮겨 보도면과 함께 여러분의 정보욕구를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 **사이버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정보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대학의 정보와 정책에 대한 제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올바른 정보문화를 다양한 모습으로 담아내겠습니다. - **정보면**: 교내·외 구성원들과 동문을 포괄하는 동정란을 강화하여 좀더 많은 사람들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론면**: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을 주제로 삼아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주보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대학주보와 함께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고 기분좋은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주/보/사

지면안내

- 3 시사
- 무계급 고속철도 사업의 대안 모색
- 5 사회
- 1백8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
- 6 지역·의료원
- 수원시 대중교통이용 편견전다
- 7 학술
- IMF에 따른 가족상의 변혁
- 8 문화
- 황석영 출간으로 본 한국 문학계의 현실

이주의 학사

4월(월)	5월(화)	6월(수)	7월(목)	8월(금)	9월(토)
서울캠퍼스 졸업사진 촬영					
초기졸업 및 부전공 신청					
창업스쿨 강좌신청					
ABS무료 홈페이지 구축 행사					
			교수·대학원생 한마당	수원 C R S 인증 시험	

기획광고

도서관 출입요금

출처: 핸드폰 PDS를 켜둔 상태에서 도서관에 들어가는 분이 아십니까?

지렁이와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과감히 쓰십시오

알 림

도깨비 장터를 엽니다

IMF 시대
높아진 물가에 뭐 하나 살 때도 망설여 지시죠?
현책과 옷가지,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필요할 것 같아 사시만 쓰지 않게 된 물건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대학주보사로 가져 오십시오.
필요없는 물건은 팔고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
도깨비 장터에서 꼭 참여하십시오.

- 1.장터서는날 : 오는 13·14일
- 2.장소 : 서울캠퍼스 잘살'탕 주변
- 3.대상 : 정의인이라면 누구나
- 4.접수 : 자신이 팔고자 하는 물건을 12일 까지 대학주보사로 가져오거나 전화로 접수에 주세요. 서울 : 961-0094~5

대/학/주/보/사